



목포문학관 개관 5주년 기념

2012 목포! 문학축전

- 목포, 문학을 품다




기간


2012. 11. 1 (목) ~ 11. 4 (일)

개막식

11.1 (목) 13:30

장소_ 목포문학관

주최 / 주관_  목포시 / 목포문학관





* 초대의 글

예향 목포의 자랑 갯바위 문화 타운에
목포문학관이 개관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한국문학사의 거봉 김우진·박화성·차범석·김현 등을
배출한 문학의 고장 목포에서
2012 목포! 문학축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에 걸쳐
전국의 많은 문학인들을 모시고
문학심포지움, 제4회목포문학상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제4회 목포문학상 수상자에게 축하를 드리며,
한국문학을 현히 밝힐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의 정취와 함께 문학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정중히 귀하를 초청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행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 18

목포시장

*1부 개막식 · 제4회 목포문학상 시상식

- 개 회
- 국 민 의 례
- 내 빈 소 개
- 제4회 목포문학상 시상식
 - 심 사 총 평 ----- 천승세(소설가)
 - 시 상 ----- 정종득(목포문학상공모회장)
- 축 사
- 시수상작 낭송 (본 상) 꺾임의 미학 ----- 정영숙
(신인상) 흰 이마가 단단하구나 ----- 심상숙

*2부 제2회 김현 문학 심포지움 사회 : 홍정선(문학평론가)

- 인사말 ----- 김치수 문학평론가
(김현문학기념사업회장)
- 특강 1. 「보다 높은 수준의 절박함」 ----- 정현종 시인
- 특강 2. 「김현과 다도해」 ----- 황현산 문학평론가
- 발표 「김현과 시를 보는 눈」 ----- 황지우 시인
- 작품 낭독 및 이야기 ----- 최두석 시인
김광규 시인
- 김현 문학 알기

참여자

김병익(문학평론가), 김주연(문학평론가), 김형영(시인), 김형중(문학평론가), 권오룡(문학평론가), 최수철(소설가), 오생근(문학평론가), 이인성(소설가)


| 제5회 김우진문학제

구분	시 간	내 용
제1부	12:30	• 등록
	12:50	• 남도청소년문학학교 창립식 창립경과보고 학생회장단 임명 및 지도교수 소개 사회 김성진(고구려대)
	13:00	• 남도청소년문학학교 2012문학특강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문예 활동〉 특별강연 : 한옥근 (조선대 명예교수)
	13:25	• 제7회 김우진전국백일장대회 개최식 글제발표 : 천승세 (심사위원장, 소설가) 심사위원 소개 및 심사 안내
제2부	13:30	• 제5회 김우진문학제 개최식 개 회 사 한옥근 (김우진연구회장) 격 려 사 정종득 (목포시장) 축 사 유 족 인 사 김예동 (김우진의 친손자) 사회 김도일(조선대)
14:00		다과회 및 휴식
제3부	14:20	• 제5회 학술발표대회 “김우진 연구의 성과와 과제” 사회 김영진(목포과학대)
		〈김우진 문학관의 양상과 실제〉 발표 : 최상민 (순천대) 토론 : 송병삼 (전남대)
		〈김우진과 木浦〉 발표 : 김성진 (고구려대) 토론 : 김재석 (시인)
제4부	15:20	• 유족과의 대화 및 종합토론 “김우진의 삶을 말하다” 좌장 이명재(중앙대 명예교수)
		유족대표 : 김예동 (김우진의 친손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륙기지건설단 책임연구원
제5부	16:00	김우진연구회 총회 및 폐회식

제7회김우진백일장대회 | 2012년 11월 2일(금) 12:50 - 16:00 목포문학관

대상 : 전국 초, 중고등학생 분야 : 운문부, 산문부

백일장대회 참가신청 : E-mail, 팩스 신청가능(지도교사 인솔시 당일 접수 가능) podojoung@hanmail.net, 061-270-8413

주최 · 주관 :  목포시 / 김우진연구회 | 후원 : 조선대, 목포대, 고구려대, 목포과학대, 한국드라마학회, 중앙어문학회, 우리문학기림회, 주)무안신문사, 사)전남관광연구소

I 제6회 소영 박화성 문학 페스티벌

구분	시간	내용
제1부	13:00	•등록 사회 고창석(초당대)
	13:30	•개회사 아마다요시꼬(박화성연구회부회장 · 니가타현립대)
	13:40	•축사 정종득(목포시장)
		•유가족 인사 천승준(문학평론가)
제2부	14:00	•기념사진 촬영
		•소영선생 작품낭독 사회 김문희(소설가) 박화성 수필 「은행잎 속에 가린 모습」 「자유의 여신상」 낭독 / 김영천(시인) 김혜경(시인) 김경애(시인)
제3부		•제6회 학술대회 사회 김창진(초당대) 주제 : 박화성문학과 기독교사상
	14:30	기조발표 박화성문학과 목포기독교백년사 김수진(장신대)
	15:10	기조발제 박화성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의식 어떻게 볼 것인가 서정자(초당대)
		기조발표 및 기조발제 통합 질의 김춘섭(전남대)
	15:50	논문발표1 박화성소설의 타자윤리학 이덕화(평택대) 토론 송명희(부경대)
	16:30	휴식
	16:40	논문발표2 박화성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신앙 이유토(충남대) 토론 이 훈(목포대)
	17:20	논문발표3 작가의 신념과 신앙-박화성소설연구 최재선(한국산업기술대) 토론 김영진(목포과학대)
	18:00	종합토론 좌장 김병욱(충남대)
	18:30	폐회식 서정자(박화성연구회장)

문학기행 | 2012년 11월 4일(일) 오전 9시 ~

해설_ 김수진(장신대), 김정섭(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향토연구가)
양동교회, 정명여학교 등 박화성 문학의 현장을 찾아서

출발 | 목포문학관 오전 9시

문학기행 참가신청 : 전화 061-450-1601 초당대 영어과 사무실 이현주 (전화010-7200-2832)

| 문학의 향기 즐거운 문학행사 및 전시

목포 ! 문학을 말하다

● 목포문인들이 모여 문학을 이야기 하다

'12.11. 3(토) 10:30

목포문학관

주관 : 목포문인협회

- 기조발표 : 김학래(수필가), 최재환(시인), 김재용(아동문학가)
- 목포 문인들의 작품 낭독

찾아가는 문학교실 문학강연

● 찾아가는 문학교실 문학 강연 퍼레이드

'12. 11. 5 ~ 16 , 각급 학교 · 사회복지시설 등

-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 문학 강연 진행



목포 문학을 노래하다 야외 시화전

'12. 11. 1 ~ 4 목포문학관 일대

- 야외 시화전 '목포의 문학인'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최하림, 김현, 김지하, 김진섭, 최일환,
목포문인협회 회원 등 40여점
- 서각과 전각으로 만나는 목포의 문학
서각, 전각으로 꾸민 목포의 문인 작품전



문학아 놀자 ! 즐거운 체험행사

- 문학관은 우체부 편지, 엽서 쓰기
- 동화속 주인공 분장 체험 및 사진촬영
- 서각 체험

작가와의 만남

• 초청작가

김주연(문학평론가) 11.2 15:30 목포정명여고

권오룡(문학평론가) 11.2 15:00 목포고등학교

우리나라 연극에 근대극을 최초로 도입한 극작가 김우진, 우리나라 여류 소설가로 최초로 장편 소설을 집필한 소설가 박화성, 사실주의 연극을 완성한 극작가 차범석, 한국 평문문학의 독보적 존재 김현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국내 최초 4인 복합 문학관이다. 작가가 평생 동안 사용했던 유품들과 창작 활동을 한 육필원고, 작품집 등이 전시되어있으며 문학체험관, 문학인사랑방, 문학창작실 등을 갖추고 있다. 문학관 주변으로 박화성, 김현 등 문인들의 문학비, 시화를 전시한 야외갤러리를 둘러 볼 수 있다. 자연사박물관, 생활도자박물관, 해양문화재연구소 등과 함께 깃바위 문화타운에 위치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 남농로 95(용해동)
Tel. 061_270_8400 Fax. 061_270_8413
홈페이지 <http://munhak.mokpo.go.kr>

| 2012 차범석 연극공연



1971년 극단산하 공연 당시 포스터

일시

2012. 11. 4. 일요일
오후 2시/5시(2회 공연)


장소

남교소극장

내용

작품명 : ‘왕교수의 직업’ (전 5막)

- 작 가 : 차범석
- 연 출 : 강대흠(목포연극협회장)
- 출연자 : 목포연극협회 회원

주최 :  목포시 | 주관 : (사)목포연극협회

작품해설

60~70년대 우리사회의 풍속도를 그린 ‘왕교수의 직업’은 ‘산불’과 함께 차범석 선생님의 희곡중 백미로 일컬으며 1970년 극단<산하>에서 초연되었다. 또한 ‘왕교수의 직업’은 ‘바람보다 문열어라’ (1995년), ‘위자료’ (1972년)등과 함께 차범석 선생님의 대표적 세태 풍자극이다. 가족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60~70년대 우리사회의 여러풍조와 징후들을 아주 경쾌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다양한 세태가 묘사되고 있다. 환경문제와 대학교육이 필요없는 세태, 언론매체의 조작성, 껌밥에만 관심있는 재벌의 허약성 등 한국사회의 구석구석을 통렬하게 풍자, 비판한 이 작품은 차범석선생님의 당대 최고의 역작임에 틀림없다.